

## 다카쿠라 가쓰코 미술관

도요마 출신 화가 다카쿠라 가쓰코(1923~2015)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화풍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전통 일본화의 기법과 재료를 현대적인 주제에 적용하는 일본화 스타일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본 미술관에서는 대형 수묵화부터 그림책의 삽화까지 작가의 다재다능함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을 소개합니다.

다카쿠라는 도쿄의 조시비 미술대학에서 일본화 기법을 공부하고 졸업 후에는 히로시마로 이사했습니다. 1945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을 때, 그녀는 폭탄이 떨어진 곳에서 3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다카쿠라는 도요마로 돌아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교사로 수십 년간 재직했고, 그동안에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카쿠라의 일본화는 젊은 여성, 일하는 여성을 따뜻한 색조와 부드러운 표현으로 그린 것이 많습니다. 미술관의 메인 갤러리는 이러한 대형 작품이나 사찰 및 불상을 평화롭게 묘사한 작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공포와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카쿠라는 전쟁의 기억에 괴로워했지만, 지역 사회의 지원을 받아 자신의 원폭 경험을 반영한 자전적 회화 세트를 제작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또 다른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카쿠라는 예술가 성명에서 '시골에서 자란 저에게는 도회적이거나 세련된 작품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느끼며 땅을 경작했습니다... 저는 제 그림 한 장 한 장에 영원한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왔습니다.'라는 글을 남긴 바 있습니다.